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임 용 빈*

본고는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동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였다.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주에서 자영자로 이동하는 현상은 특정 업종에서만 관찰되며, 도농지역의 경우 농림어업 자영자와 나머지 임금근로자가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유배우자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과 동시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새로 유입되는 자영업은 감소하고 있다. 장기간의 경력을 가진 고령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은 장기간 경력을 가질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층 자영업자의 건강문제와 급격한 노동이탈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산업화 이전에는 종사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농림어업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법 제도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 형태의 자영업자와 고용주가 다양한 부문에 늘어났다. 산업화가 정착되면서 공식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노동시장은 산업화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반영하는 다양한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자료(본 조사, 8월 부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자영업자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단기적 및 장기적 변화와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변화를 살펴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ybim@kli.re.kr).

도록 하였다. 다음은 농림어업과 건설업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추세를 살펴보았다. 자영업의 폐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보고, 자영업의 고령화 현상과 장시간 노동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관찰된 특징들을 종합하여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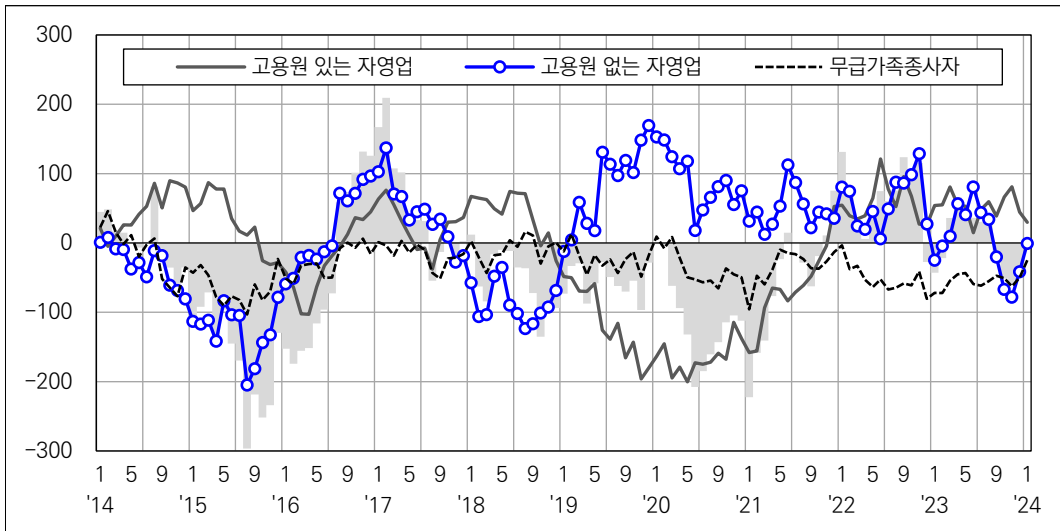
II.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

1. 자영업자 증감의 반복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1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29.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4만 명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급가족종사자가 2.5만 명 감소한 것으로 고려하면 자영업자는 2.9만 명 증가하였다. 그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이하 고용주)는 3.0만 명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자)는 0.1만 명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비임금근로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두 번의 증가 시기(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모두 고용주와 자영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시기 두 번의 큰 감소가 있었는데(2015년부

[그림 1]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터 2016년 상반기까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처음에는 자영자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면,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주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2022년부터 매월 전년동월대비 5~6만 명 수준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9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이상 증가했던 자영자는 이후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기간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던 고용주는 2021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은 5만 명 내외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하던 시기와 감소하던 시기를 나누어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자영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3년간 14만 명의 자영자 감소 중에 12.5만 명의 농림어업 자영자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4.6만 명 감소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고용주와 자영자가 함께 증가했는데, 자영자는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주는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업종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표 1〉 업종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14~2016년 하락		2017년 증가		2019~2021년 하락		2022~2023 증가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전 산업	51	-140	24	44	-344	219	113	63
농림어업	-7	-125	-4	17	6	85	-2	88
제조업	-8	11	0	-2	-67	3	31	-20
건설업	-13	12	7	8	-55	28	12	11
도소매업	24	-41	-6	-13	-81	-29	-8	-51
운수창고	-2	-23	0	-17	-5	87	13	40
음식숙박	46	13	5	27	-49	50	26	-15
정보통신	3	20	-3	1	-4	-11	4	12
금융보험	1	4	0	5	-8	-8	4	8
부동산	3	21	11	2	-20	-1	6	-11
전문기술	4	5	-3	10	-9	6	18	1
사업서비스	6	19	2	-3	-9	7	6	11
교육	6	-21	8	-7	-21	-33	-1	15
보건복지	-4	0	-4	5	-3	-3	-4	7
여가예술	-5	-4	8	3	-16	16	9	4
기타개인	-8	-34	4	9	-3	21	-2	-4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9년 고용주가 크게 감소하고 자영자가 증가하는 흐름은 2020년 이후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1년까지 이어졌다. 3년 동안 고용주는 34.4만 명이 감소했는데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자영자는 21.9만 명 증가했는데 운수창고, 농림어업, 음식숙박 순으로 증가하였다. 고용주의 감소폭과 자영자의 증가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용주가 종업원을 줄이면서 자영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각각 증가하고 감소하는 업종이 다르게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고용주가 감소하고 자영자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 5만 명, 여가예술업 1.6만 명 수준으로 전체 증감을 설명하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다. 2022년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모두 증가했는데, 자영자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고용주는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감소하던 시기와 상관없이 도소매업은 2017년부터 고용주와 자영자가 함께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자영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주는 1981년 65만 명에 불과했으나 15년간 약 100만 명의 고용주가 증가하였다. 고용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으로 약 40~45% 비율을 40년 전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업종은 제조업(광업 포함)으로 약 20만 명의 고용주가 있었으며 외환위기 전까지 3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주로 섬유, 의복, 가죽제품과 생산하는 사업체가 제조업 고용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¹⁾.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으로 퇴출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업체가 발생하면서 제조업 고용주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현재는 전체 고용주의 11~1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업종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로 10만 명에 불과했던 고용주가 2023년 44.3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영자는 31만 명에서 177.5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자영업자는 1980년대 당시에는 개인가사서비스업, 부동산업, 용역업에 한정되었으나,²⁾ 최근에는 교육서비스업(과외 및 학원운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공인중개사),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늘어나고 있다.³⁾

- 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80년 산업연관표 고용표(소분류) 기준, 제조업 자영업자(당시 무급종사자) 11만 명 중 섬유(모사, 면사 등), 직물, 의복, 피혁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영업자는 4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 1980년 산업연관표 고용표 기준, 도소매, 음식숙박을 제외한 서비스업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개인및가사서비스(23.3만 명), 부동산업(5.9만 명), 용역업(5.9만 명), 사회서비스(4.7만 명), 도로운수(4.4만 명) 순으로 이를 제외한 서비스업 자영업자는 모두 2.7만 명을 넘지 않는다.
- 3) 2019년 사업연관표 고용표 기준, 도소매, 음식숙박을 제외한 서비스업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로운송(50.7만), 교육서비스업(34.3만), 기타개인서비스업(33.5만), 부동산(16.5만), 스포츠 및 오락 관련(9.9만), 자동차 수리 및 세차(7.9만) 순으로 이를 제외한 서비스업 자영업자는 60만 명 수준이다.

〈표 2〉 업종별 자영업자 규모(1981~2023년)

(단위 : 천 명)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수도·전기	도소매·음식	서비스업	전 산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	1981	40 (6.1)	199 (30.7)	41 (6.3)	267 (41.2)	102 (15.7)	649
	1986	35 (3.9)	235 (26.4)	94 (10.6)	369 (41.4)	157 (17.7)	890
	1991	29 (2.2)	326 (25.3)	173 (13.4)	513 (39.7)	250 (19.4)	1,291
	1996	32 (2.0)	331 (20.6)	233 (14.5)	718 (44.7)	291 (18.1)	1,605
	2001	40 (2.6)	270 (17.4)	189 (12.2)	670 (43.3)	379 (24.5)	1,548
	2006	43 (2.6)	252 (15.5)	235 (14.4)	670 (41.1)	431 (26.4)	1,630
	2011	50 (3.3)	238 (15.6)	174 (11.4)	651 (42.7)	413 (27.1)	1,526
	2016	42 (2.7)	211 (13.3)	153 (9.7)	717 (45.3)	461 (29.1)	1,584
	2021	56 (4.2)	146 (11.2)	106 (8.1)	609 (46.6)	391 (29.9)	1,307
	2023	54 (3.8)	177 (12.5)	118 (8.3)	628 (44.2)	444 (31.3)	1,420
고용원 없는 자영업	1981	2,231 (54.6)	255 (6.2)	16 (0.4)	1,272 (31.1)	312 (7.6)	4,086
	1986	1,846 (46.4)	308 (7.7)	24 (0.6)	1,352 (34.0)	448 (11.3)	3,978
	1991	1,486 (40.3)	218 (5.9)	37 (1.0)	1,272 (34.5)	674 (18.3)	3,686
	1996	1,318 (32.1)	238 (5.8)	109 (2.7)	1,559 (38.0)	881 (21.5)	4,105
	2001	1,265 (28.0)	284 (6.3)	153 (3.4)	1,599 (35.3)	1,222 (27.0)	4,523
	2006	1,053 (23.5)	228 (5.1)	222 (5.0)	1,428 (31.9)	1,549 (34.6)	4,479
	2011	919 (22.3)	217 (5.3)	214 (5.2)	1,158 (28.0)	1,624 (39.3)	4,132
	2016	771 (19.1)	223 (5.5)	254 (6.3)	1,134 (28.1)	1,648 (40.9)	4,030
	2021	886 (21.1)	212 (5.0)	277 (6.6)	1,107 (26.3)	1,724 (41.0)	4,206
	2023	975 (22.8)	193 (4.5)	286 (6.7)	1,041 (24.4)	1,775 (41.6)	4,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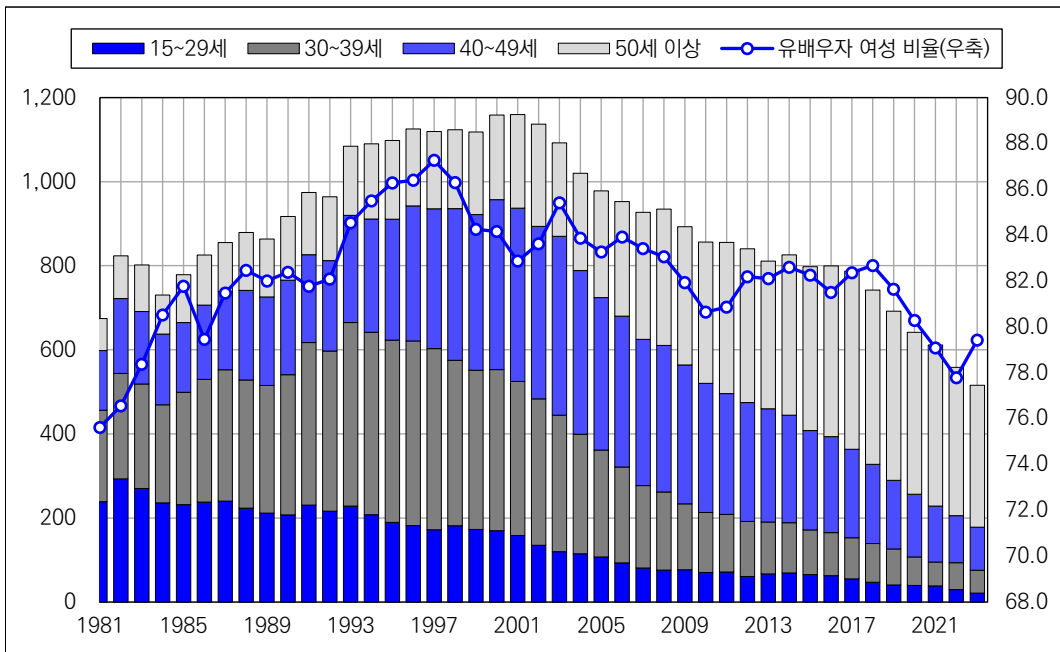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자영업 일을 보수 없이 18시간 이상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주로 포함되며, 그중 유배우자 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무급가족종사자가 증가하였고, 가업을 함께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성인 자녀가 증가하면서 유배우자 여성 비율은 1981년 76%에서 1997년 87%로 높아졌다. 따라서 1980~1990년대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청년층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30대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 증가도 둔화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유배우자 여성이 증가하면서 30대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40대와 5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2010년 들어서는 40대 비중도 낮아졌고 현재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도 2001년 116만 명에서 2023년 51.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신규 진입하는 자영업자도 감소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는 앞으로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연령대별 무급가족종사자의 분포와 유배우자 여성 비율

(단위: 천명, %)



주: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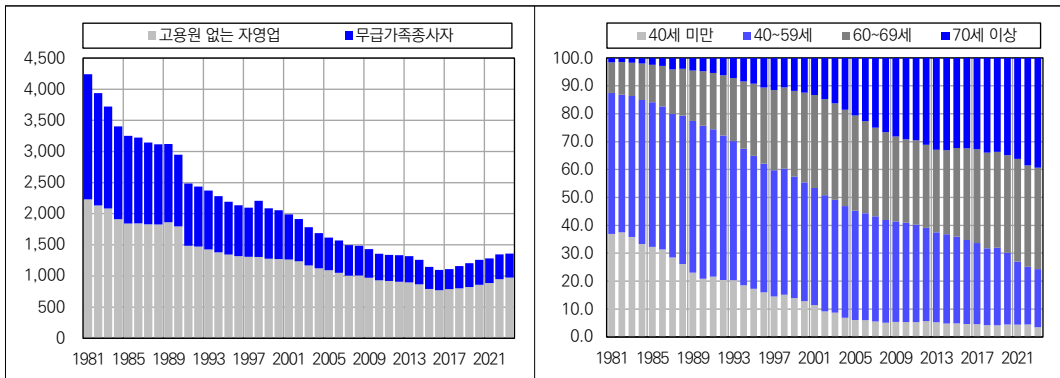
3. 농림어업 자영업의 장기적, 단기적 변화

농림어업은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1981년 농림어업 취업자 480만 명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0.8%, 40년이 지난 2023년에도 151.3만 명 중 6.7%가 임금근로자에 해당한다.⁴⁾ 농림어업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보다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주로 벼농사를 통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데,⁵⁾ 자영농의 가구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나 성인자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후 무급가족종사자로 참여하는 성인자녀가 1981년 47만 명 수준에서 1989년 12.3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현재까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별 혹은 이혼으로 홀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자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농림어업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여 2010년 수준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을 귀농귀촌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60세 이하 연령대의 농림어업 참여는 30% 이하로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60대 고령층 농림어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70세 이상 초고령층의 농림어업 참여가 2013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는데, 이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연평균 70세 이상 농림어업 자영자는 42.4만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1만 명으로 초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그림 3] 농림어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추이(좌)와 연령대별 분포(우)

(단위: 천 명(좌), %(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4) 1980년 산업연관표 고용표 기준, 농림어업 피용자는 46.6만 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벼(8.7만 명) 다음으로 수산어업(8.2만 명)에서 피용자 계약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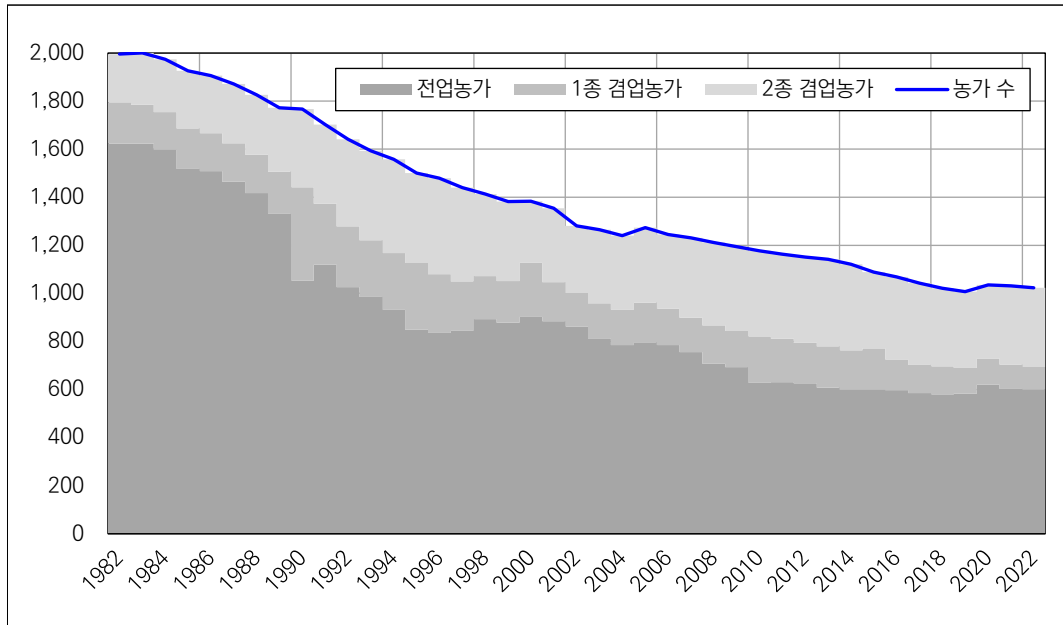
5) 1980년 산업연관표 고용표 기준, 농림어업 자영업자는 342.7만 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벼(130만 명), 야채(56.4만 명), 축산(53.1만 명), 맥류(18만 명), 임산물(16.9만 명)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조사한 우리나라의 농가 수는 1982년 기준 200만 가구에서 2022년 기준 약 100만 가구로 절반으로 감소하여 경황과 비슷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어업조사에서는 농업의 경영형태에 따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가는 전업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 외에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경영규모가 작은 영세농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겸업에 참여하고 경영규모가 클수록 전업농가가 많다. 겸업농가는 1종 겸업농가와 2종 겸업농가로 나뉘는데, 1종 겸업농가는 농업 경영의 비중이 큰 농가를 의미하고 2종 겸업농가는 농업경영보다 겸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은 농가를 의미한다. 감소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전업농가이며 1종 겸업농가는 지난 40년간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2종 겸업농가는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농가의 농사일을 서로 돕는 과정에서 겸업농가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공공일자리와 겸업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농림어업조사는 농가와 농림어업 취업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경황조사에서는 주로 농사 일을 하고 농한기에 한시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농림어업 취업자로 구분하고 있고, 상용근로자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비농가 취업

[그림 4] 전업농가와 겸업농가 추세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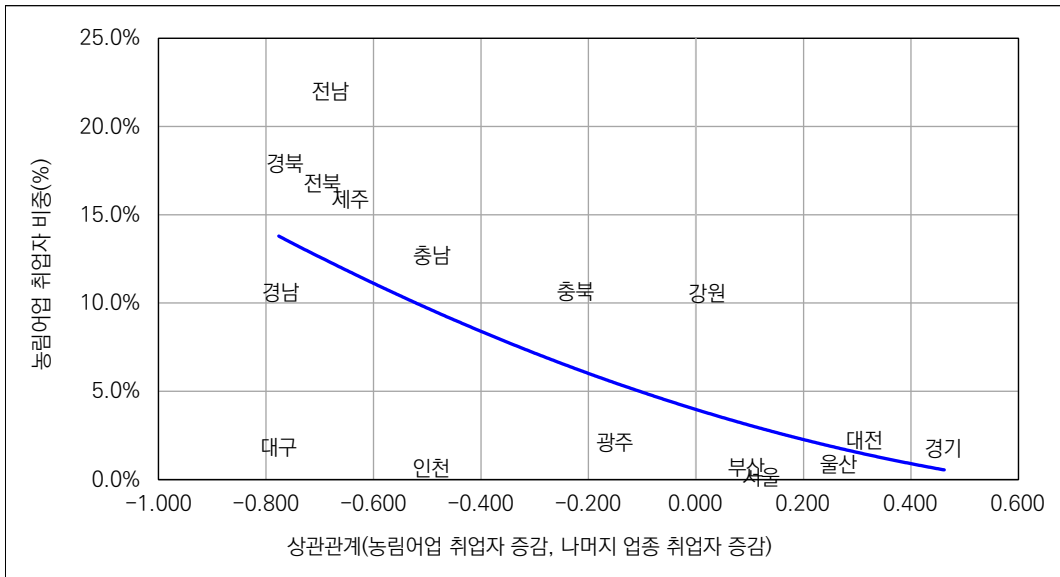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조사에서 겸업농가는 일반적으로 농번기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농한기가 되는 겨울에 겸업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농촌지역이 점차 도시화, 공업화되면서 지역 내에 확산되는 업종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형태의 겸업도 발생하고 있다. 즉 2종 겸업농가는 경찰에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찰에서 농림어업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겸업의 근로시간이나 소득의 비중에 따라 주업과 겸업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 나머지 업종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18개 시도별로 10년간(2014~2023) 농림어업 취업자의 증감과 나머지 업종 취업자의 증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X축에 두고, 10년간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율(%)을 Y축에 두어 산포도와 추세선을 그려 [그림 5]로 나타내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낮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농림어업과 나머지 업종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취업자의 15% 이상이 농림어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과 나머지 업종 취업자 증감이 반비례하고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낮은 지역은 상관관계가 낮다.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증가한 해에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증가, 감소를 두고 농업경기 흐름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자료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과 농림어업 취업자와 나머지 업종의 상관관계(2014~20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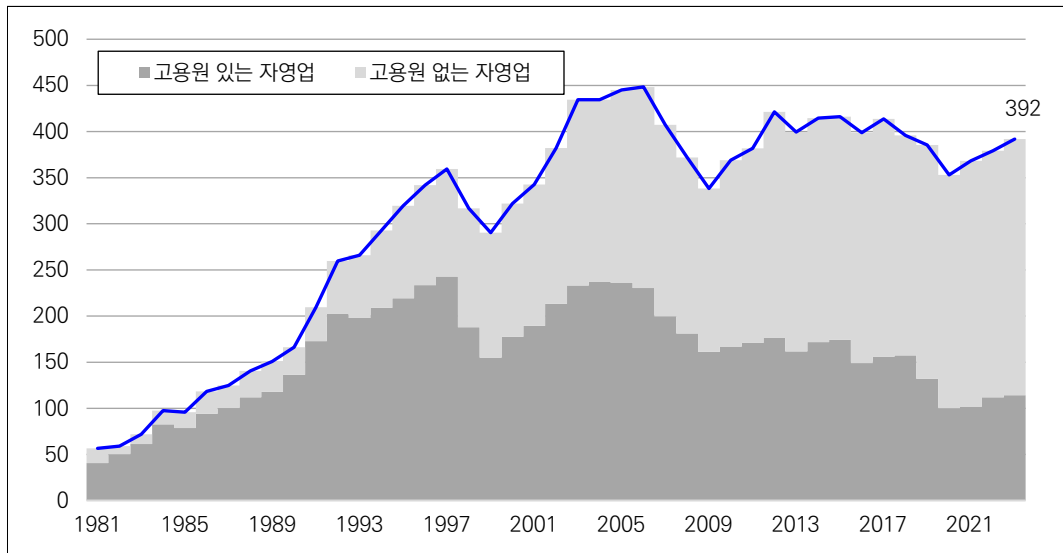
4. 건설업 자영업자의 변화

지난 40년간 건설업 자영업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종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알 수 있다. 1981년 6만 명에 불과했던 건설업 자영업자는 건설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함께 증가하여 1991년에는 21만 명,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6만 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건설업 자영업자의 60~70%는 고용주가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주 위주로 증가한 것은 건설업에서 필요한 일용직 노동력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업무를 맡는 일명 ‘작업반장’, ‘오야지’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관계가 1990년대 후반에 시공참여자라는 명칭을 통해 제도로 편입시키고자 시도 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도 고용주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⁶⁾로 건설업자가 아니지만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본인의 인부를 꾸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건설업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공참여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어 2007년 폐지되었다. 이후 건설업 고용주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현재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인 10만 명 내외 수준이다.

[그림 6] 건설업 자영업자 규모(1981~2023년)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6) 당시(2002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시공참여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행법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노동시장은 직접고용이 아닌 하도급 위주의 고용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굴착기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1인 사업자등록 후 임대계약 및 도급 계약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많아지고 1인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는 공사현장이 늘어나면서 자영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자영업자 39만 명 중에 28만 명이 자영자로 종사하면서 건설업 자영업자는 점차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편이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경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이후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비롯해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개발되면서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는 2015년까지 직장(사업장)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용주와 지역가입자 형태로 가입한 고용주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고용주는 2015년 기준 65.1만 명, 국민연금 미가입된 고용주도 28만 명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소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 미가입 고용주와 지역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 고용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역가입자 및 미가입 고용주는 52.1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및 지자체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주의 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고용주의 적극적인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15년 45.3%에 불과했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3년 65.3%로 증가하였다.

자영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이 있는 자영자가 2015년에는 15.5%, 2023년에는 24.4%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수급자를 제외한 자영자 중 40.9%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점차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2023년은 미가입률이 30.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자영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대다수는 지역가입자로 2015년 지역가입자 자영자는 170만 명으로 2023년에는 224.8만 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통계에서 파악된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690만 명 중 소득신고자가 380만 명으로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시킨 납부예외자 비중이 높으며, 기준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31.0%로 직장가입자(4.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⁷⁾.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

고 있으나 지원 규모 및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023.10.30.)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홍보를 계획하고 있어, 점차 국민연금 가입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천 명)

	국민연금 가입				산재보험 가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 미가입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2015. 8	614	651	79	280	735	888	1,624
2017. 8	703	541	87	250	833	747	1,580
2018. 8	763	526	125	236	920	731	1,651
2019. 8	712	501	133	189	852	682	1,535
2020. 8	646	445	118	153	797	566	1,363
2021. 8	633	421	121	127	806	496	1,301
2022. 8	698	398	141	118	872	482	1,354
2023. 8	736	389	156	132	923	490	1,4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천 명)

	국민연금 가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권)자	미가입	
2015. 8	322	1,700	630	1,402	4,055
2017. 8	431	1,768	686	1,269	4,153
2018. 8	361	1,771	757	1,141	4,030
2019. 8	347	1,849	776	1,155	4,127
2020. 8	369	1,874	826	1,124	4,193
2021. 8	76	2,148	914	1,111	4,249
2022. 8	31	2,221	1,060	1,025	4,336
2023. 8	35	2,248	1,067	1,020	4,3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7)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중위소득(2023년 기준 100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자료가 없는 가입자가 포함된 수치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고용형태가 자영업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⁸⁾ 자영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0년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12월 기준 자영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는 4만 8천 명 수준으로 5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와 개인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자영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피보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도 2021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외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이나 운수창고업 등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은 10년 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 자영업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근속 3년 미만의 자영업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점차 3년 이상 근속을 가진 자영업자가 늘어났다. 2020년 이후 신규 자영업자가 매년 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표 6〉 업종별, 근속연수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단위: 명)

	자영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업종별				채용기준 근속연수			
		도소매, 음식숙박	사회,개인 서비스	제조업, 건설업	나머지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2014. 12	17,199	7,978	2,855	3,172	3,194	3,823	13,375	1	0
2015. 12	16,769	7,555	2,835	3,141	3,238	3,731	4,281	8,757	0
2016. 12	17,910	8,002	3,204	3,216	3,488	4,438	3,935	8,893	644
2017. 12	17,500	7,733	3,076	3,233	3,458	3,414	4,641	2,524	6,921
2018. 12	19,345	8,376	3,422	3,646	3,901	5,650	4,280	2,334	7,081
2019. 12	23,245	10,195	4,044	4,335	4,671	8,175	5,259	2,736	7,075
2020. 12	31,391	14,197	5,773	5,321	6,100	13,390	8,207	2,614	7,180
2021. 12	37,599	17,198	7,138	6,204	7,059	12,696	14,026	3,196	7,681
2022. 12	43,319	18,240	11,203	6,572	7,304	13,467	16,906	5,152	7,794
2023. 12	47,831	20,485	12,197	7,189	7,960	14,088	16,250	9,007	8,486

주: 사회, 개인서비스는 표준산업분류(9, 10차)의 O,P,Q,R,S를 의미함.

채용기준 근속연수는 고용보험 취득 중인 사업장의 채용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서는 비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6. 자료형태별 자영업 폐업 현황

자영업 폐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세청 국세통계가 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법인/일반/간이/면세), 업종, 지역별, 폐업사유별(사업부진, 행정처분 등)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 특성상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직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전 취업자 정보를 활용하여 전직 자영업 통계를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⁹⁾ 중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업체를 살펴보면 2022년 각각 20.1만 명, 14.6만 명으로 2015년 이후 폐업하는 사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간이사업자는 소매업에서 폐업사업체가 2022년 7.8만 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도 도소매업 5.9만 명 음식숙박업 4.2만 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폐업자는 21만 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18~2020년에는 폐업자 4명 중 3명 이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직 고용주는 2023년 기준 3.6만 명, 전직 자영업자는 14.7만 명으로 두 자영업 지위 모두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전직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2023년

〈표 7〉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직 자영업자 및 국세청 폐업자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직 자영업자(천 명)				국세통계 폐업자 현황(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	자영업자	도소매 음식숙박 비율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합계	도소매 음식숙박 비율
2015	63	201	264	41.2%	177,355	101,358	278,713	68.2%
2016	64	194	257	39.8%	196,762	104,830	301,592	69.9%
2017	43	179	222	42.5%	192,697	101,453	294,150	72.3%
2018	48	179	227	40.6%	201,544	102,878	304,422	75.8%
2019	64	190	254	38.7%	214,673	108,673	323,346	76.9%
2020	48	196	245	39.5%	211,603	113,594	325,197	76.4%
2021	40	169	210	37.6%	205,985	137,828	343,813	71.7%
2022	28	145	173	37.2%	200,836	145,855	346,691	65.3%
2023	36	147	183	36.7%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농림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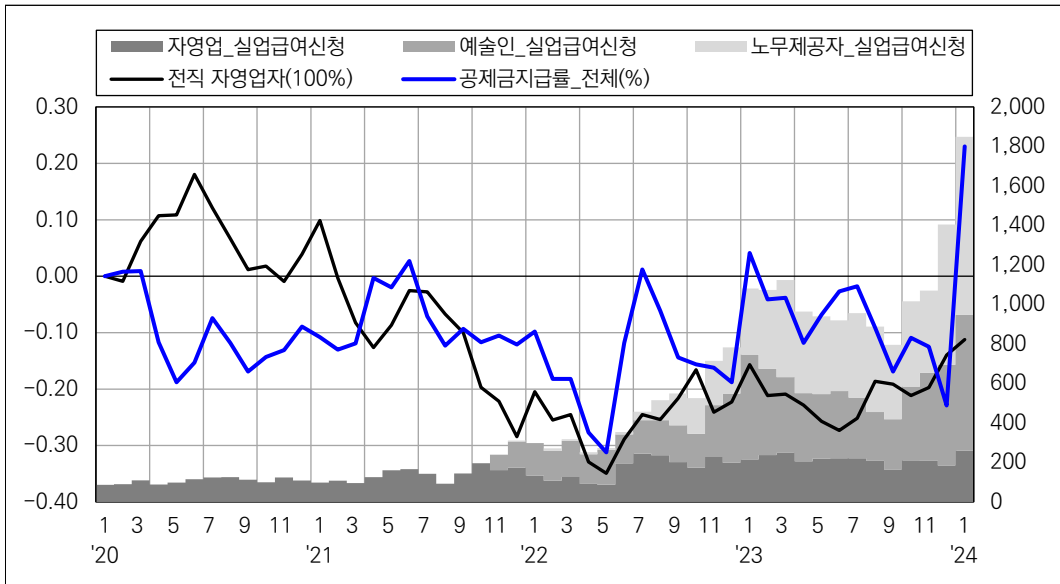
9)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를 의미한다.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도매업 등)일 경우 일반사업자로 분류된다.

기준 6.7만 명으로 국세통계에 비해 적게 관찰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폐업자는 연도별로 11.3만~14.4만 명 수준, 경찰 전직 자영업자는 10.9만~15.6만 명 수준으로 비슷하게 관찰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통계청이 민간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자료 중¹⁰⁾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노란우산)에서 폐업으로 지급한 공제금(지급회원수, 지급금액 기준) 변화를 통해 폐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¹¹⁾ 2023년 6월 기준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는 171만 명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¹²⁾ 경찰조사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1/4 수준으로 자영업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행정통계 중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를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¹³⁾ 가입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¹⁴⁾ 가입자로 나누어 경

[그림 7] 자료형태별 자영업 폐업 추이 비교

(단위: 20년 1월 대비 전직 자영업자 변화율(100%, 좌축), 20년 1월 대비 공제금지급율 변동(%p, 좌축), 실업급여 신청(명, 우축))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나우캐스트(Nowcast),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 10)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나우캐스트(Nowcast),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공식 통계와 최대한 상관성을 가지는 민간 또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보성 지표를 개발, 발표하고 있다.
- 11)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률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공제회의 전월 재적건수 대비 해당월 공제금 지급건(폐업사유에 한함)수 비율로 산출되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과 실제 공제금 수령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12)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2023. 7. 19.).
- 13)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 14)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고용보험 시행령 제104조의 11항에 따른 노무제공 직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이 포함된다.

제활동인구 월별 전직 자영업자 규모(2020년 1월=100%)와 함께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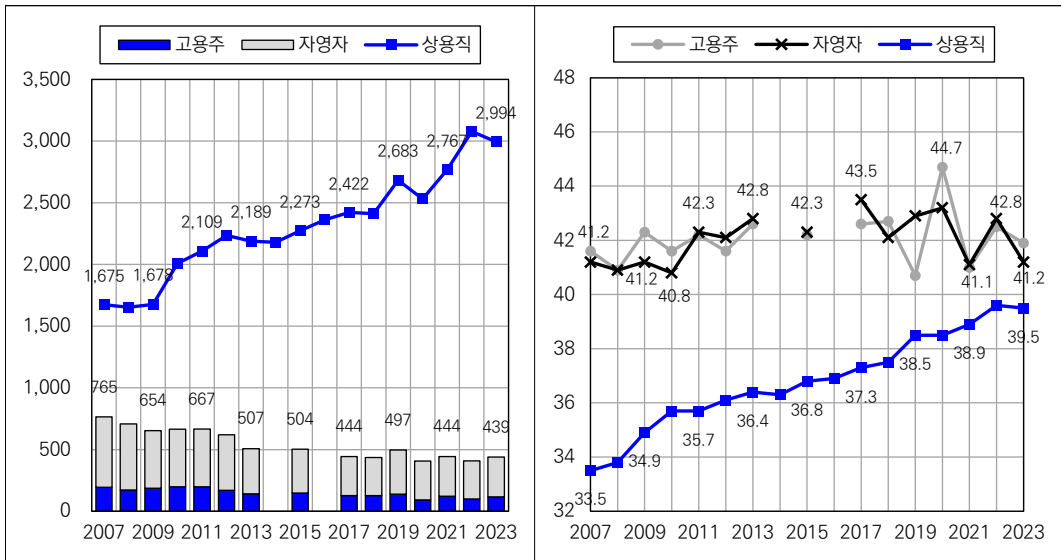
2020년 1월 대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률(지급회원수 기준)은 2020년 1월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경황로 살펴본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로 경제활동을 했던 미취업자는 2020년 내내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 최대 3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황 기준 전직 자영업 미취업자의 감소폭은 이후 2년 동안 둔화하고 있어 공제금 지급률 통계 및 전직 자영업자 통계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 중 자영업자는 100~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술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은 2022년부터 증가하여 2023년 동안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4년 1월 공제금 지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는 것까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자영업자의 고령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짧은 근속을 가진 근로자가 점차 다양한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뿐만 아니라 30~40대 취업자도 이직이나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들어오고, 고령층도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입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근속 1년 이하의 상용직, 자영업자의 규모 및 평균연령(8월 부가조사)

(단위: 천 명(좌), 연령(우))



주: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8〉 근속기간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규모

(단위: 천 명)

	2007. 8	2011. 8	2015. 8	2019. 8	2023. 8
전체	4,961	4,678	4,765	4,710	4,684
1년 이하	765 (15.4)	667 (14.3)	504 (10.6)	497 (10.6)	439 (9.4)
1~3년	913 (18.4)	828 (17.7)	691 (14.5)	749 (15.9)	744 (15.9)
3~5년	659 (13.3)	545 (11.7)	608 (12.8)	563 (12.0)	590 (12.6)
5~10년	1,138 (22.9)	935 (20.0)	993 (20.8)	954 (20.2)	1,011 (21.6)
11~20년	1,006 (20.3)	1,104 (23.6)	1,226 (25.7)	1,113 (23.6)	983 (21.0)
21년 이상	480 (9.7)	598 (12.8)	744 (15.6)	834 (17.7)	917 (19.6)

주: 1)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하며 농림어업 자영업자는 제외하였음.

2) 근속기간은 조사연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연월을 제한 값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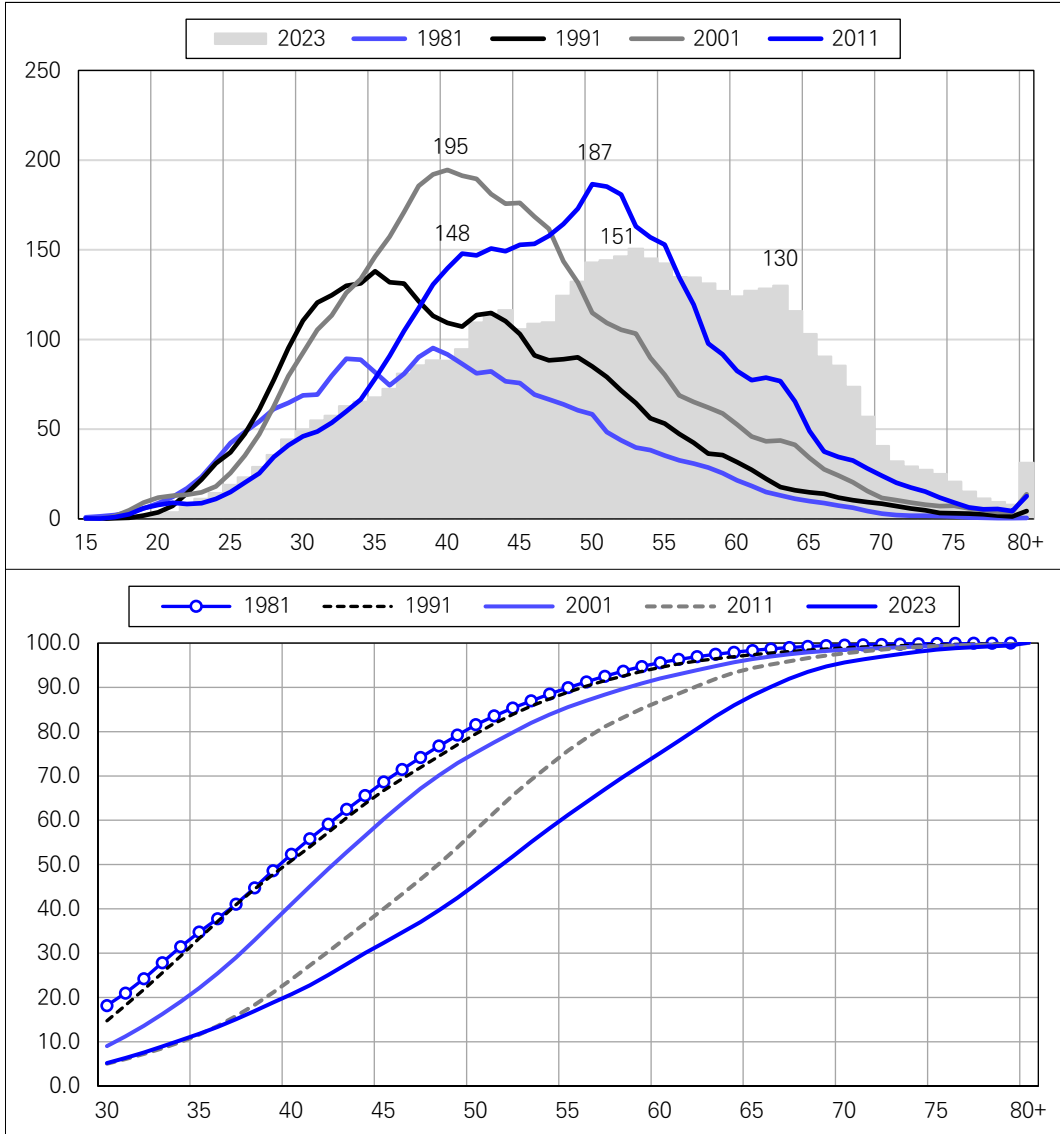
조사시점 기준 일을 시작한 지 12개월을 넘지 않는 상용직은 2007년 8월 기준 167.5만 명 수준에서 2023년에는 3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근속 1년 이하의 상용직 평균 연령은 2007년 33.5명으로 20~30대의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은 39.5세로 연령대가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 농림어업 제외)는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 근속 1년 이하의 자영업자는 2007년 76.5만 명에서 점차 감소해서 2017년부터 4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진입 연령대도 2007년과 동일하게 41~43세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21년 이상의 오랜기간 근속을 가진 자영업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7년 기준 자영업자 중 21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진 자영업자는 10% 미만이었으나 2023년에는 19.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긴 경력을 가진 고령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고령화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를 통해 40년간 자영업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981년, 1991년은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30대가 자영업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발생하였다. 2001년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나타냈던 40대 전후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38~42세(95.3만 명), 10년 후 2011년 48~52세 연령대(89만 명)에서 자영업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년 후 2023년 60~64세 연령대 자영업자는

[그림 9] 연령대(1세)별 자영업자 분포 및 누적분포

(단위: 천 명(위), %(아래))



주: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62.5만 명으로 약 70%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기준 두 번째 봉우리에 해당하는 40세 전 후 연령대의 자영업자는 2023년 50~54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1세)별 누적분포를 살펴보면, 1981년, 1991년 자영업자의 중위연령이 40세였다면, 2023년에는 40세 이하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30세 자영업자도 1980~1990년대 20%

의 비율이었다면 현재는 5% 수준으로 젊은 연령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중위연령은 2001년은 42세, 2011년은 48세, 2023년에는 52세로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60세 이상도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 자영업자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고 특정 코호트(2023년 기준 60~64세, 50~54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70세 이상의 초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자영업자는 25만 명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고 80세 이상 자영업자도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앞서 설명한 70세 이상 농림어업 자영업이 42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70세 이상 초고령층 전체 자영업자는 8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8.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변화

근속기간이 임시일용직보다 긴 상용직은 경력 초기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길어지지만 점차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007년 8월 기준 상용직의 입직 1년 이하 상용직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¹⁵⁾이 주당 47.2시간이었으나 근속 11년 이상, 21년 이상 높아질수록 소정근로시간이 44.5시간, 43.3시간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완화되어 2023년 8월 기준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41.4시간인데 1년 이하의 근속기간을 가진 상용직과 나머지 근속기간이 긴 상용직 모두 비슷한 소정근로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용주는 주당 보통 일하는 시간¹⁶⁾이 2007년 55.3시간에서 48.8시간으로 감소했으나 상용직보다 주당 7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유지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 52.3시간을 근무하지만 영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업유지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업과정에서 종업원 수를 늘리고 사업주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것이다.

자영자는 상용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2007년 기준 주당 6시간 이상 차이가 나타났으나 2023년 들어 4시간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사업유지기간이 1년 이하의 자영자는 근속 1년 이하의 상용직과 근로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용직은 경력이 증가하면서 짧아지거나 유지되고, 자영자는 오히려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유지기간이 21년을 넘어가는 자영자는 주당 46.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에 포함된 자영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15) 지난주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회사에 고용되어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초과근무 및 잔업 등 제외).

16) 지난주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실제적으로 해당 사업체 운영과 관련되어 일한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게 문을 열어둔 시간으로 파악하지 않고 실제 가게에 머물러 운영하는 시간을 보낸 경우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9.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의 비중 증가

고용주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부분은 1~4인 규모의 소기업이다. 5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고용주(농림어업 제외)의 비중은 2004년 기준 36.3%, 10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11.9%를 차지했다. 그러나 5인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체의 고용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23.3%까지 감소하였다. 10인 이상 규모 사업체 고용주의 비중은 2017년 5.3%

〈표 9〉 근속기간별 상용직과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단위 : 시간/주)

	근속기간 사업유지기간	2007. 8	2011. 8	2015. 8	2019. 8	2023. 8
상용직 소정 근로시간 (농림어업 제외)	전체	46.1	43.5	43.1	42.4	41.4
	1년 이하	47.2	44.2	43.4	42.1	41.1
	1~3년	47.1	43.9	43.7	42.6	41.2
	3~5년	46.7	43.6	43.3	42.3	41.3
	5~10년	46.3	43.6	43.1	42.6	41.5
	11~20년	44.5	42.9	42.7	42.5	41.6
	21년 이상	43.3	42.0	41.6	41.6	41.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보통 근로시간 (농림어업 제외)	전체	55.3	53.7	52.2	50.2	48.8
	1년 이하	57.0	55.5	54.8	53.4	52.3
	1~3년	56.2	55.1	54.4	52.0	51.2
	3~5년	56.0	54.2	53.1	50.6	48.4
	5~10년	55.1	53.2	52.4	49.2	49.6
	11~20년	54.6	51.9	51.0	49.3	46.8
	21년 이상	52.0	53.4	48.9	48.7	4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보통 근로시간 (농림어업 제외)	전체	52.3	50.4	48.5	47.7	45.5
	1년 이하	48.1	47.2	44.5	46.0	42.6
	1~3년	51.6	48.8	47.1	45.8	43.8
	3~5년	52.4	49.3	48.1	47.6	44.9
	5~10년	53.1	51.3	49.4	46.9	46.2
	11~20년	54.8	51.7	48.8	48.6	46.4
	21년 이상	53.8	53.2	50.9	50.0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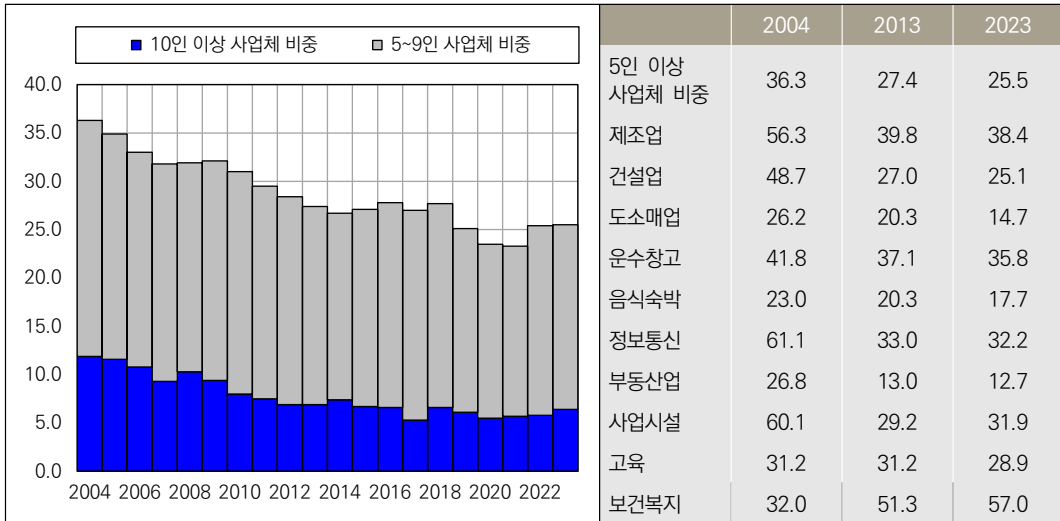
주 : 1) 농림어업 자영업자는 제외하였음.

2) 근속기간은 조사연월에 자영업을 시작한 연월을 제한 값을 의미함. 근로시간은 지난주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되어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자영업자는 보통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10] 5인 이상 사업체 고용주 비율 추이 및 업종별 비율

(단위: %)



주: 농림어업 제외, 2004년은 9차 표준산업분류, 2013, 2023년은 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까지 감소하였고 현재도 6%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주가 평균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4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및 관리업이었다. 10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40%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보통신업은 32~33%, 사업시설 및 관리업은 절반 이하인 30~3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주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체는 2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은 26.2%였던 5인 이상 사업체 비율이 14.7%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년 전에 비해서 5인 이상 사업체의 비율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으로 5인 이상 사업체 비율이 2004년 32.0%에서 2013년 51.3%, 2023년 57.0%까지 증가하고 있다.

III. 맺음말

본고는 자영업 노동시장이 이어지면서 발생한 변화와 특징을 다양한 시점에서 살펴보았다. 고용주가 감소하고 자영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고용주가 직원을 줄이고 자영자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이는 숙박음식점과 같은 업종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오히려 농림어업의 자영농이 다른 업종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현상이 도농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년 이후 30대와 40대 유배우자 여성이 가구주의 자영업을 보조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아닌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림어업이 감소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섬유 및 의복, 가죽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주가 늘어났으나 해외 이전 등으로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고용주가 늘어났으나 현재는 건설기계기사,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국세통계와 경찰자료와 비교해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업종은 두 자료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노란우산과 고용보험자료와 비교해보면 최근 폐업 및 실업급여 신청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신규 입직하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과거부터 장기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4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던 자영업자가 현재 60대가 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보통 일하는 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경력이 길어질수록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은 경력이 길어질수록 오래 일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채용하는 인원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채용인원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에서의 5인 이상 사업체 고용주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입직과 퇴출이 꾸준히 반복되는 임금근로자 시장과 달리 새로 입직하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을 가진 자영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령층 중심의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경제생활을 이어가면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경력이 많은 자영업자가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수요 감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노동환경 개선을 비롯해 고령층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은퇴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KLI**